



물류자동화시스템 HALS구축 안정화

남궁성 / 현대하이스코(주) 순천공장장

한국물류협회가 선정한 2002년 물류대상 산업포장 부문에 현대하이스코(주)가 선정됐다.

남궁성 공장장은 "이번 수상을 계기로 경쟁력 강화, 기술혁신, 신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21세기 한국 철강산업의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"라며 소감을 대신했다.

현대하이스코(주)는 세계최초로 대중량 고층창고(HW High/Bay SYS')를 냉간압연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순천공장의 SYS' 물류에 적용하여 정상화하였다.

남궁성 공장장은 "최대 중량 23톤까지 적재가 가능한 대중량 고층창고는 전 세계적으로 단위창고 기능으로서는 활용된 사례가 있으나 금번 순천공장에서 적용된 것처럼 PROCESS 내에서 Level-1,2,3 컴퓨터와 연계된 단일물류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완벽하게 성공한 사례는 처음"이라고 설명했다.

현재 순천공장에서는 12,356개의 RACK을 보유하여 적재용량 186,600톤의 제품 및 원자재의 물류를 전자동으로 운용하고 있으며, 본 시스템은 한정된 부지 공간 내에서 가장 경제적인 투자와 운영비용으로 구



축한 시스템 물류의 성공사례로서 동종사 및 유사업종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.

남궁성 공장장은 "물류자동화시스템 HALS(HYSCO Auto Logistic System)을 구축 안정화 시킴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동종업체 및 유사업종에서 검증된 시스템으로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 개념의 물류체계를 구축하였다.

이는 CLTS, TMS, MPS 등 첨단기능을 연결한 종합물류SYS'으로써 무인 대차시스템, 트럭운영시스템, 핸드폰을 이용한 고객 정보 제공 등 사내전체시스템(Level-3 SYS')과 연계하여 공장물류로서 최적의 모델을 구축 적용시킴으로서 성공사례를 이룩했다"고 말했다.

현대하이스코는 지난 2000년 5월 동종업계 최초로 "6-시그마 경영혁신운동"을 도입하여 전사원의 60% 이상을 개선전문가로 양성하였고, 매년 300여건의 과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물류 개선 부문에서도 많은 성과를 도출시키고 있다.

물류자동화 산업의 주역으로 활약할 현대하이스코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. 